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보급 현장 방문

- 구세군과천양로원에서 맞춤형 TV 보급 현장 의견 청취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9월 10일(화) 과천 소재의 구세군과천양로원을 방문,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 TV 보급 대상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방통위는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이 장애인방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맞춤형TV를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3만 2천대를 보급한다.

시각·청각장애이용 TV는 지난 4월부터 시각·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소득구분(저소득·비저소득)에 따른 정해진 보급 인원 내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미디어가 현대사회에서 정보 습득과 여가 활동을 위한 필수적 수단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방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책임자	과 장	윤웅현 (02-2110-1460)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02-2110-1298)